

트랜스젠더 쇼를 본 적이 있다. 너무나 어여쁜 팔등신 미인들이 나와 노래를 부르며 눈길을 붙잡았고, 현란한 율동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을 처음 본 느낌은 참 예쁘구나였고, 다음은 저들도 안타까운 삶을 사는 것은 마찬가지겠구나 하는 것이었다. 어떤 이유가 됐든 스스로 여성임을 자각하고, 여성으로 살겠다고 마음먹은 그들에게 동질감을 느꼈기 때문이고, 사람살이에 대한 인지상정 탓이다.

사람들은 트랜스젠더를 정말 여성으로 생각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보통 여성을 능가하는 아름다움을 강요한다. 또 트랜스젠더를 설명할 때 '여자보다 더 예쁜'이라는 수식을 붙이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들을 보면서 여성과 다른 점을 찾는 데 몰두하며 '저렇게 굵고 몽툰한 팔에 근육이 도드라진 장딴지로 무슨 여자인가, 키가 큰가 몸매가 아름다운가, 전혀 여자가 아니잖아' 하고 쉽게 말한다. 혹은 '예쁘지도 않으면서 무슨 용기로 트랜스젠더이길 자처하는가' 하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기도 한다. 즉 일정수준의 미모를 지니지 못하면 여성이라는 용기 있는 자각은 쉽사리 무시되고 만다.

그래서일까. 공연 내내 비현실적인 미인들 속의 한 '여성'에게 눈을 땔 수 없었다. 자그마한 키에 전체적으로 통통한 마늘쪽 같은 인상이었다. 저 모습이 바로 여성이 아닌가 하며 그를 바라봤다. 그런데 가만 보니 그는 바로 아이를 들쭉 낳은 아줌마의 모습이 아닌가. 그날 내 안의 여성상이 무엇인지 확신하게 됐고, 공연이 끝나고 그 여성과 사진을 찍었다. 그에게서 억압받지 않고 왜곡되지 않은 여성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느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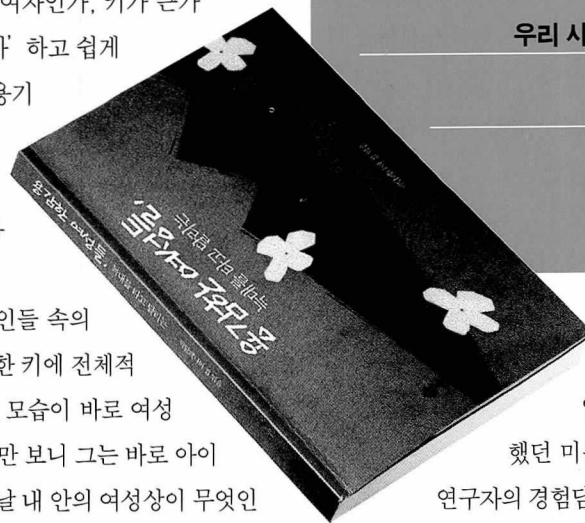
왜곡되고 선택된 여성성과 성매매 현장의 삶

《용감한 여성들, 늑대를 타고 달리는》(삼인)을 읽으면서 트랜스젠더 쇼를 볼 때와 같은 느낌이었다. 사회가 강요하는 왜곡되고 선택된 여성성. 분명하게 구획지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진정한 여성으로 인정받고 대접받지 못하는 성매매 현장의 여성과 공연장의 트랜스젠더가 머릿속에 겹쳤다. 필요에 따라 정체성을 선택하고 조합할 수 있는지, 그게 정당하고 납득할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분명 현실이다.

이 책에는 성매매 연구에 대한 고민, 어린 여성들의 성매매에 대한 연구와 그들과의 만남, 성매매 밀집지역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경험과 인권에 대한 생각, 기지촌의 필리핀 여성노동자, 성매매 여성들의 자치조직인 '개나리회'에 대한 기억과 기록이 담겨 있다. 연구자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친근하다. 경험에서 비슷한 경우를 끌어낼 수 없어도 연구와 답사과정의 떨리는 마음이 그대로 전해온다. 이 책에서 전해들은 여성을 어디선가 만났거나 만나게 될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힌다.

대학 때는 기지촌활동이 농활처럼 학생회의 연례행사였다. 끔찍하고 고통스럽게 죽어간 기지촌 여성에 대한 애도도 줄을 이었다. 그 기억을

이 책은 우리 사회의 성매매 현장에 대한 체험적 보고서다. 그곳은 머나먼 이국의 낯선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의 결자리고 우리 이웃이 사는 곳이다. 여성성이 유리되고 왜곡되는 현장의 글들을 읽으며 그들의 삶과 무관하지 않은 우리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묻게 된다. 이런 질문은 고통스럽지만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용감한 여성들, 늑대를 타고 달리는》

우리 사회 성매매 현장에 대한 체험적 보고서

막달레나의 집 엮음

삼인/A5신/320면/12,000원

떠올리며 읽는 글 여덟편은 짧지만 무겁다. 답사하고 조사하면서 알게 되는 인생 하나하나에 멈춰 서면, 어머니가 운영했던 미용실의 주고객이 '그 언니들'이었다는 한 연구자의 경험담은 예삿일로 돌릴 수 있을 정도다.

이 책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내 경험을 헤아렸다. 듣거나 읽은 적이 있는지, 만난 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하여 떠올린 기억 하나는 '개나리회'를 알고 있다는 것이다. 자체 정화, 회원의 권익 보장, 건강관리 등을 목적으로 1980년대 초반에 활동한 '개나리회'에 대한 기록을 어릴 적 어딘가에서 읽은 것이다. 그 기사에는 언덕에서 쓸쓸하게 내려오는 풍신한 여성의 사진이 있었고, 그가 개나리회인지, 민들레회인지 당시 표현으로 윤락여성을 돕는 단체를 이끌었다는 내용이었다.

엄연한 현실과 대면하게 해

책을 다 읽고 나니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다. 연구자들이 밀착해 보여주는 삶에 그렇구나 하고 수긍하기도 하고, 현장을 탈출하는 용기에 응원을 보내기도 했지만, 책장을 덮으며 아득해졌다. 여성과 여성성, 사람살이와 먹고사는 것, 그 경계의 안팎... 지은이들이 쏟아놓는 이야기는 너무 많은 것 같다가도 다들 한가지만 붙들고 있다는 느낌에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쏟아놓으면서, 엄연한 현실과 대면하게 해놓고 도대체 어떡하라는 것일까.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아직 모른다. 다만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무언가 시작됐음을 감지할 뿐이다. —차정신기자